

대학생의 외식행동과 식당 선택요인에 관한 연구

우경자¹ · 양향숙² · 노정옥^{2*}

¹인하대학교 식품영양학과, ²전북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인간생활과학연구소

A Study on the Eating Out Behavior and Its Factors in Restaurant Selection of University Students

Kyung-Ja Woo¹, Hang-Sook Yang² and Jeong-Ok Rho^{2*}

¹Dept. of Food and Nutrition, Inha University, 402-751, Korea

²Dept. of Food Science and Human Nutrition, Research Institute of Human Ecology, Chonbuk National University, 561-756, Korea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eating out behavior and its factors in restaurant selection by students in Incheon area. Self administered questionnaires were collected from 297 students. Statistical data analysis was completed using a SPSS v. 10.0 program.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 The average age, weight, height, BMI and male and female students were 24.31, 67.96 kg, 174.93 cm, 22.17 ; 20.55, 51.99 kg, 165.44 cm, 19.00 reflectively. About 54.2% of male students and 38.0% of female students responded to eat out at least once a day. And lunch was most frequent meal for eating out. About 57% of students responded to have eat at restaurants around campus, and 19.5% of students used the university foodservice system. Korean-style food was most favorite dish when they ate out. Major source of restaurants information was recommended action by friends or family. But the use of internet or magazine was negligible. The factor of restaurants choice was in order 'taste', 'price', 'atmosphere' and 'hygienic'.

Key words : Eating out behavior, university foodservice system, factor in restaurant selection.

서 론

우리사회의 경제력 상승, 여성의 사회 참여 증가, 핵가족 및 독신가구의 증가로 가정에서의 외식의 빈도가 높아졌으며 외식업계는 대기업과 다국적 외식업체들이 활발한 영업 활동을 하므로써 외식인구의 증가에 기여하였다(Kwon SH 2003). 더욱이 소비자의 욕구를 고려하여 감각적이며 이국적인 분위기를 갖춘 다양한 외식업체의 마케팅 기법의 도입은 외식 빈도를 더욱 증가시켰다(Woo et al 2004). 2001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의하면 조사대상자의 31.7%는 매일 외식을 하며 7~29세 젊은층의 경우 매일 외식하는 비율이 40~45%로 조사되었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02). 이같은 외식산업의 발전은 외식업소의 양적인 증가를 초래하였으나 장기간의 경제 불황은 외식산업에 커다란 타격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박선정 2004). 그러나 최근 기업의 주 5일 근무제의 도입과 웰빙 붐에 따라 외식업소들은 가족 중심의 패러다임이 강조되는 요일별로 다양한 메뉴(교남

회 2004) 또는 건강메뉴의 개발(육주희 2004)로 시장 확대를 시도하고 있으며 소규모의 외식업소의 경우 대형 외식업소와 유사한 마케팅 기법을 활용하는 등의 자구책을 통하여 매출 증대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실정이다.

외식과 관련된 연구(Kwon SH 2003)에 의하면 외식은 영양보완 이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외식을 위한 식품 선택 기준은 연령, 성별에 따라 다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Ro HK 1999). 특히 외식빈도가 높은 청소년들과 대학생들은 Internet 등의 영향으로 선호하는 브랜드, 맛, 인테리어 등(김혜정 2003)에 특별한 기호도를 가지고 있어 대학생들의 학교 식당에 대한 요구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Rho & Woo(2004)의 연구에 의하면 학생들의 학교식당에서 제공되는 음식의 맛과 서비스 등에 대한 불만이 높아 학생들의 학교 식당이 아닌 외부 식당에서의 식사빈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Bottler & Rho(2001)의 연구에 의하면 급식소의 불만족 고객은 불만사항을 언급하여 시정되도록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기보다는 다른 급식소를 선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대학 식당의 경우, 식당의 품질에 불만족한 학생들이 학교 식당이 아닌 외부 식당 이용률이 지속적으로 높아진다면 결국 식당 존폐에 영향

* Corresponding author : Jeong-Ok Rho, Tel: +82-63-270-4135, Fax: +82-63-270-3854, E-mail : jorho@chonbuk.ac.kr

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위기 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학교 식당의 경영자는 학생들의 음식에 대한 기호도는 물론 식당 선택의 요인들을 분석하여 식당 경영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자세가 필요하겠다.

대학 급식 및 대학생의 식행동과 관련된 연구로는 식품 섭취에 따른 영양실태 조사(Cheong et al 2001, Lee & Chang 2003), 기호도 조사(Choi et al 2001, Shin & Seo 1995), 대학 급식소 이용 실태(Kim et al 2000, Yang et al 1998, Woo et al 2004), 외식 행동(Jeong & Kim 2001, Park SW 2004, Roh & Yoo 1989, Shin & Kim 1995) 등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되어 왔으나 인천 지역 대학생의 외식 행동과 식당 선택 기준을 조사한 연구는 많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천지역 대학생들의 외식 행동과 식당 선택 요인을 조사하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외식업체뿐만 아니라 대학 식당의 효율적인 경영을 위한 기초 자료를 얻고자 수행되었다.

조사대상 및 방법

1. 조사대상 및 기간

대학생들의 외식 행동과 식당 선택 시 고려하는 요인을 조사하기 위하여 인천 소재 대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2003년 9월~10월까지 설문조사를 하였다. 개발된 설문지는 식품영양학 전공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하였으며 확인된 문제점들을 보완·수정한 후 설문지를 완성하였다. 설문지는 전공이 다른 총 320명의 대학생을 표본으로 조사하였으며 강의시작 전에 방문하여 학생들에게 설문지의 실시 목적을 설명하고 설문지를 배포하여 그 자리에서 직접 기입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하여 설문지는 총 320부를 배포하여 총 310부가 회수되었으며 이중 불충분하게 응답한 13부를 제외한 297부(95.8%)를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2. 조사내용

본 연구를 위해 개발된 설문지는 선행연구(Jeong & Kim 2001, Park SW 2004, Roh & Yoo 1989, Shin & Kim 1995)를 참조하여 조사 대상자의 일반사항 7문항, 외식 실태 조사 8문항 및 식당 선택 시 고려사항 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일반사항으로는 성별, 연령, 거주 형태, 한달 용돈 등을 포함시켰으며 외식 실태 조사에서는 외식빈도, 비용, 시기, 선택 음식 종류, 장소 등으로 구성하였다. 식당 선택시의 고려사항으로는 정보 획득 경로, 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 및 불만 사항 등을 조사하였다.

3. 통계처리

자료의 분석은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를 이용하여 빈도, 평균,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독립

된 두 집단의 평균값을 비교할 때는 두 표본 *t*-검정(two sample *t*-test) 방법을 이용하여 집단간의 차이를 분석하였으며 조사대상자의 인적 사항에 따른 외식 실태 등은 χ^2 -검정을 이용하여 차이를 분석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사항

본 연구는 인천에 위치한 대학교에 재학중인 297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사항은 Table 1과 같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

Categories	Male	Female	Total
Sex	118(39.7)	179(60.3)	297(100)
Age(years)	24.31±2.46*	20.55±1.22*	
Major			
Social science	111(94.1)	45(25.1)	156(52.5)
Natural science	7(5.9)	134(74.9)	141(47.5)
Type of residence			
One's own house	73(61.9)	110(61.5)	183(61.6)
Relative's	1(0.8)	12(6.7)	13(4.4)
Dormitory	7(5.9)	4(2.2)	11(3.7)
Boarding	3(2.5)	8(4.5)	11(3.7)
Self-Boarding	34(28.8)	45(25.1)	79(26.6)
The other	-	-	-
Birth area			
Seoul	43(36.4)	59(33.0)	102(34.3)
Incheon	27(22.9)	24(13.4)	51(17.2)
Kyungkido	9(7.6)	21(11.7)	30(10.1)
Kangwondo	2(1.7)	6(3.4)	8(2.7)
Choongchungdo	9(7.6)	12(6.7)	21(7.1)
Kyungsangdo	8(6.8)	17(9.5)	25(18.4)
Pusan	3(2.5)	8(4.5)	11(3.7)
Jeonlado	16(13.6)	26(14.5)	42(14.1)
Jejudo	1(0.8)	4(2.2)	5(1.7)
The other	-	2(1.1)	2(0.7)
Monthly expense (10,000-W)			
<10	3(2.5)	11(6.1)	14(4.7)
11~20	28(23.7)	28(15.6)	56(18.9)
21~30	41(34.7)	75(41.9)	116(39.1)
31~40	26(22.0)	35(19.6)	61(20.5)
41~50	13(11.0)	20(11.2)	33(11.1)
51<	7(5.9)	10(5.6)	17(5.7)

*Mean±S.D.

다. 남학생 39.7%, 여학생 60.3%이었으며 남학생의 평균 연령은 24.31세, 여학생은 20.55세였다. 전공은 문과 52.5%, 이과 47.5%이었고 학생들의 거주 상태는 남녀 학생 모두 가족과 함께 사는 경우(61.6%)가 가장 많았으며 자취, 친척집, 기숙사, 하숙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출생지는 서울, 인천, 전라도 등의 순으로 대부분 경인 지역에서 출생하였다. 조사 대상자의 한달 용돈은 21~30만원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2. 조사대상자의 체위 및 비만도

조사 대상자의 평균 체중과 신장은 Table 2와 같다. 남학생은 67.96 kg, 174.93 cm, 여학생은 51.99 kg, 165.44 cm이었다. 한국인 성인 평균 표준치(RDA 2000)인 남자 67 kg, 174 cm와 비교할 때 남학생은 표준치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었다. 여학생의 경우는 표준치(체중 54 kg, 신장 161 cm)와 비교할 때 신장은 한국인 성인 표준치보다 4 cm 정도 높았으나 체중은 기준치보다 약 2 kg 낮은 수준이었다. BMI의 경우, 남학생의 평균치는 22.17로서 Shin & Seo(1995)의 연구 결과보다 높았다. 여학생의 평균 BMI는 19이었다. 전체 남학생의 73.7%가 정상범위인 20~25에 속하였고 수척범위인 20이하는 14.5%이었다. 그러나 여학생은 68.1%가 수척범위인 20이하이었으며 정상범위에 속하는 여학생은 31.9%이었다. 이는 You et al(1994)의 연구에서 BMI가 20이하인 여학생의 수가 정상범위의 여학생보다 높았던 결과와 같은 경향을 보였으며 Rho & Woo(2003)의 연구 결과와 비교할 때 식품영양 전공 여학생의 BMI인 19.53보다 낮은 수치이었다. BMI가 25~30인 남학생은 11.8%이었으며 비만이라 할 수 있는 30이상은 없었으며 여학생은 BMI 25이상은 없었다.

3. 외식실태

1) 외식빈도 및 장소

조사 대상자의 외식실태는 Table 3과 같다. 1주일에 3~4회

외식한다고 대답한 남학생은 26.3%, 여학생은 48%이었다. 그러나 남학생의 54.2%, 여학생은 38%가 매일 1회 이상 외식을 하는 것으로 남학생들이 여학생보다 외식하는 비율이 유의적으로 높았다($p<0.001$). 이 같은 높은 외식비율로 인하여 남학생의 35.6%, 여학생의 31.3%가 한달에 십만원 이상을 외식비로 지출하고 있었다. 조사 대상자들은 주로 점심식사(46.4%)를, 그 다음은 저녁식사를 외식으로 해결하고 있었다. 특히 여학생의 15.3%는 외식을 통하여 간식을 섭취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Table 4). 본 조사에서 가장 많이 외식을 하는 식사가 점심식사인 것은 Ro HK(1999)와 Jeong & Kim(2001)의 연구 결과와 같았으나 본 조사 대상자의 식사별 외식비율은 높지 않았다. 거주형태에 따라서는 하숙과 자취를 하는 조사 대상자의 외식 빈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각각 72.7%, 59.4%이었다(Table 5). 외식을 할 때 동행하는 대상은 90% 이상의 조사 대상자들이 주로 친구들이었으며 5.7%만이 가족과 함께 외식을 하고 있었다. 더욱이 남학생의 8.5%는 혼자서 식사를 하는 것으로 대답하였다. 그러나 조사 대상자들은 거주 형태에 상관없이 주로 친구들과 외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이는 Kim & Lee(1998)의 연구에서 조사대상 남녀 대학생의 70%가 친구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고 한 것과 비교할 때 본 조사에서도 같은 결과를 보였다.

외식하는 장소는 주로 '학교밖의 식당'(56.6%)이었으며 19.5%만이 학교 식당을 이용하는 것으로 학교 식당의 이용률이 높지 않았다. 학교 식당 이용률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았으나 학교나 집 근처가 아닌 레스토랑 이용률은 여학생이 높았다. 특히 서울 소재의 식당 이용률이 높은 것은 조사 대상 여학생의 33.0%가 서울 출생인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사 대상자의 건강과 관련된 음주 실태 조사에서는 남녀 학생간에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9.3%의 남학생과 10.1%의 여학생이 많이 마신다고 하였으며 남학생의 27.1%와 여학생의 26.3%는 약간 마시고 있으며 63.6%의 남

Table 2. Anthropometric data of the subjects

Categories	Male(n=118)	Female(n=179)	Total(n=297)	N(%)
Weight(kg)	67.96±8.18 ¹⁾	51.99±3.96		$p=0.000^{***2)}$
Height(cm)	174±4.95	165±4.12		$p=0.010^{**}$
BMI ³⁾				
<20	17(14.5)	122(68.1)	139(46.8)	
20~25	87(73.7)	57(31.9)	144(48.5)	
25~30	14(11.8)	-	14(4.7)	$p=0.000^{***4)}$
30<	-	-	-	
	22.17±2.25	19.00±1.45		

¹⁾ Mean±SD, ²⁾ ** : $p<0.01$, *** : $p<0.001$ by *t*-test.

³⁾ Body Mass Index : Weight(kg) / Height(m²), ⁴⁾ *** : $p<0.001$ by χ^2 -test.

Table 3. Eating-out behaviors of the subjects

N(%)

Categories	Male	Female	Total	χ^2
Frequency of eating-out				
1 time/day	32(27.1)	51(28.5)	83(27.9)	23.409***
2~3 times/day	32(27.1)	17(9.5)	49(16.5)	
1~2 times/week	12(10.2)	14(7.8)	26(8.8)	
3~4 times/week	31(26.3)	86(48.0)	117(39.4)	
1~2 times/month	10(8.5)	10(5.6)	20(6.7)	
None	1(0.8)	1(0.6)	2(0.7)	
Monthly expense (₩)				
<10,000	7(5.9)	6(3.4)	13(4.4)	11.303*
20,001~ 40,000	18(15.3)	23(12.8)	41(13.8)	
40,001~ 60,000	16(13.6)	22(12.3)	38(12.8)	
60,001~ 80,000	8(6.8)	37(20.7)	45(15.2)	
80,001~100,000	27(22.9)	35(19.6)	62(20.9)	
100,000<	42(35.6)	56(31.3)	98(33.0)	
Eating-out companions				
Family	5(4.2)	12(6.7)	17(5.7)	16.208***
Friends	103(87.3)	167(93.3)	270(90.9)	
Alone	10(8.5)	-	10(3.4)	
Eating-out place				
University foodservice	29(24.6)	29(16.2)	58(19.5)	15.220**
Restaurants around campus	68(57.6)	100(55.9)	168(56.6)	
Restaurants around home	6(5.1)	8(4.5)	14(4.7)	
Restaurants in Seoul	2(1.7)	22(12.3)	24(8.1)	
Restaurants in Incheon	4(3.4)	12(6.7)	16(5.4)	
The other	9(7.6)	8(4.5)	17(5.7)	
Frequency of drinking alcohol				
Much	11(9.3)	18(10.1)	29(9.8)	0.099 ^{NS}
Little	32(27.1)	46(25.7)	78(26.3)	
None	75(63.6)	115(64.2)	190(64.0)	

* : $p < 0.05$, ** : $p < 0.01$, *** : $p < 0.001$.

Table 4. Kind of consumed eating-out of subjects

N(%) (Plural answer)

Categories	Male	Female	Total
Breakfast	4(2.1)	6(1.8)	10(1.9)
Lunch	93(47.4)	150(45.7)	243(46.4)
Dinner	81(41.3)	122(37.2)	203(38.7)
Snacks	18(9.2)	50(15.3)	68(13.0)
Total	196(100)	328(100)	524(100)

학생과 64.2%의 여학생이 마시지 않는 것으로 답하였다. 본 조사 결과를 대학생의 음주 실태를 조사한 Kim et al(1996)과 Ro HK(1999)의 연구 결과와 비교할 때 음주를 하지 않는 학생의 비율이 증가된 것으로 보이거나 약간 음주하는 것을 포함한 여학생의 음주율이 36.1%로 나타나 여학생들에게 음주와 관련된 영양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2) 외식 시의 선택 음식

외식 시에 주로 선택하는 음식의 종류는 Table 6과 같았다. 조사 대상자들은 한식을 가장 선호하고 있었으며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점심식사(90.7%)와 저녁식사(78.6%)로 한식보다 간편하고 저렴한 국수류를 더 섭취하고 있었다. 전통 반상 차림의 백반은 조사 대상자의 42.0%가 선택하고 있었다. Kim & Kim(2002)은 식생활은 매우 보수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식을 선택하는 비율이 높다고 보고하였으며 Park & Shin(1996)과 Park & Ahn(2001)의 연구에서도 외식 시 한식점을 선호한다고 하였는데 본 조사에서도 같은 결과를 보였다. 패스트푸드는 여학생들이 저녁식사(91.3%), 점심식사(89.2%) 및 간식(55.9%)으로 남학생보다 더 선택하였다. Kim & Kim(2002)의 연구에서 패스트푸드가 식사보다는 간식으로 이용된다고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다른 결과를 보였다. 그

Table 5. Eating-out behavior by type of residence of the subjects

N(%)

Categories	One's own house (n=183)	Relative's (n=13)	Dormitory (n=11)	Boarding (n=11)	Self-boarding (n=79)	Total (n=297)	χ^2
Frequency of eating-out							
1 time/day	53(29.0)	2(15.4)	3(27.3)	6(54.5)	19(24.1)	83(27.9)	22.603 ^{NS}
2~3 times/day	24(13.1)	2(15.4)	1(9.1)	2(18.2)	20(25.3)	49(16.5)	
1~2 times/week	14(7.7)	-	2(18.2)	-	10(12.7)	26(8.8)	
3~4 times/week	75(41.0)	8(61.5)	5(45.5)	2(18.2)	27(34.2)	117(39.4)	
1~2 times/week	16(8.7)	1(7.7)	-	1(9.1)	2(2.5)	20(6.7)	
None	1(0.5)	-	-	-	1(1.3)	2(0.7)	
Eating-out companions							
Family	14(7.7)	-	-	-	3(3.8)	17(5.7)	5.490 ^{NS}
Friends	162(88.5)	13(100)	11(100)	11(100)	73(92.4)	270(90.8)	
Alone	7(3.8)	-	-	-	3(3.8)	10(3.4)	

NS: Not significant.

Table 6. Items of eating-out

N(%) (Plural answer)

Categories	Breakfast			Lunch			Total
	Male	Female	Total	Male	Female	Total	
Korean style I (Noodle/Ramyun)	2(100)	-	2(100)	8(9.3)	78(90.7)	86(100)	
Korean style II (Baekban)	6(42.9)	8(57.1)	14(100)	91(56.5)	70(43.5)	161(100)	
Fast food	1(33.3)	2(66.7)	3(100)	7(10.8)	58(89.2)	65(100)	
Western style	1(100)	-	1(100)	8(33.3)	16(66.7)	24(100)	
Chinese style	-	-	-	8(30.8)	18(69.2)	26(100)	
Japanese style	3(75.0)	-	-	1(33.3)	2(66.7)	3(100)	
The other	-	1(25.0)	4(100)	-	3(100)	3(100)	
Total	13(4.2)	11(45.8)	24(100)	123(33.4)	245(66.6)	368(100)	
Categories	Dinner			Snack			Total
	Male	Female	Total	Male	Female	Total	
Korean style I (Noodle/Ramyun)	6(21.4)	22(78.6)	28(100)	14(30.4)	32(69.6)	46(100)	162(20.0)
Korean style II (Baekban)	76(46.1)	89(53.9)	165(100)	-	-	-	340(42.0)
Fast food	2(8.7)	21(91.3)	23(100)	26(44.1)	33(55.9)	59(100)	150(18.5)
Western style	10(23.3)	33(76.7)	43(100)	-	4(100)	4(100)	72(8.9)
Chinese style	6(50.0)	6(50.0)	12(100)	-	1(100)	1(100)	39(4.8)
Japanese style	3(20.0)	12(80.0)	15(100)	-	-	-	18(2.2)
The other	3(42.9)	4(57.1)	7(100)	5(33.3)	10(66.7)	15(100)	29(3.6)
Total	106(36.2)	187(63.8)	293(100)	45(36.0)	80(64.0)	125(100)	810(100)

러나 패스트푸드점을 선호하는 비율이 여자가 남자보다 높다는 Park & Ahn(2001)의 연구 결과와는 같은 결과이었다. 양식의 경우는 저녁식사(76.7%)로 여학생들이 남학생보다 더 선택하고 있으며 중국식도 남학생보다 여학생들이 특히 점심식사(69.2%)로 선택하고 있었다. 일식의 경우는 저녁식사(80.0%)를 위하여 여학생들이 남학생보다 더 선택하고 있었다. 광주 지역의 대학생(Kim KH 2003)들은 외식식>한국식>분식>패스트푸드>양식>일식의 순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대학생들의 제한된 경제력으로 값이 저렴하고 이용하기 편리한 한식, 중국식, 분식을 주로 섭취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Table 7에서와 같이 조사 대상자들이 지출하는 한끼 식사 비용이 높지 않은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사 대상자의 40.9%가 한끼 식사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2,001~3,000원을, 34.7%는 2,000원 이하를 지출하고 있었다. 특히 여학생의 67.5%는 간식 섭취를 위하여 지출하고 있었다. 3,001~4,000원을 지출하는 22.1%의 조사 대상자 중 여학생의 비율이 남학생보다 많았으며 4,001원 이상 지출 비율도 여학생이 더 많았다.

Table 8과 같이 조사 대상자들이 아침식사를 하기 위하여 외식을 할 경우 주로 먹는 아침식사를 기록하도록 한 결과 학생 식당의 백반(26.7%)과 빵류(26.7%)를 가장 선호하고 있었으며 이중 31.6%의 남학생은 백반을 30.8%의 여학생은 빵류를 선호하고 있어 남녀 학생간의 선호 메뉴에 차이가 있었다. 이는 본 조사에서 자취하는 학생의 비율이 높은 것과 관

Table 8. Favorite breakfast menu items of subjects
N%(Plural answer)

Categories	Male	Female	Total
Baekban(Uni. foodservice)	6(31.6)	6(23.1)	12(26.7)
Bread	4(21.0)	8(30.8)	12(26.7)
Milk	5(26.3)	4(15.4)	9(20.0)
Kimbab	2(10.5)	3(11.5)	5(11.1)
Fruit	1(5.3)	-	1(2.2)
Coffee	1(5.3)	-	1(2.2)
Ham	-	1(3.8)	1(2.2)
Cookies	-	1(3.8)	1(2.2)
The other	-	3(11.5)	3(6.7)
Total	19(100)	26(100)	45(100)

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Table 1). 조사 대상자의 20.0%는 아침에 우유를 마시고 있으나 남학생(26.3%)이 여학생(15.4%)보다 높게 조사되었다. 그러나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아침 메뉴로 빵류를 선호하는 결과를 볼 때 여학생들은 우유가 아닌 다른 음료를 마시고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Rho & Woo (2003)는 아침식사를 한식으로 하지 않았을 경우 조사 대상자들이 빵류>과일>주스>생식 등의 다양한 식품을 섭취하고 있다고 하였으나 본 조사는 외식을 통한 아침식사만으로 제한하였기에 Rho & Woo(2003)의 조사 결과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대학생들은 아침의 시간 부족 등으로 인

Table 7. Expense each eating-out

N%(Plural answer)

Categories	Breakfast			Lunch			Total
	Male	Female	Total	Male	Female	Total	
2000<	9(42.9)	12(57.1)	21(100)	29(42.6)	39(57.4)	68(100)	
2001~3000	1(25.0)	3(75.0)	4(100)	57(41.3)	81(58.7)	138(100)	
3001~4000	1(100)	-	1(100)	16(32.0)	34(68.0)	50(100)	
4001~5000	-	-	-	-	2(100)	2(100)	
>5000	-	1(100)	1(100)	-	1(100)	1(100)	
Total	11(40.7)	16(59.3)	27(100)	102(100)	157(100)	259(100)	

Categories	Dinner			Snack			Total
	Male	Female	Total	Male	Female	Total	
2000<	13(86.7)	2(13.3)	15(100)	13(32.5)	27(67.5)	40(100)	144(34.7)
2001~3000	37(55.2)	30(44.8)	67(100)	10(33.3)	20(66.7)	30(100)	239(40.9)
3001~4000	23(35.4)	42(64.6)	65(100)	4(30.8)	9(69.2)	13(100)	129(22.1)
4001~5000	4(12.9)	27(87.1)	31(100)	1(50.0)	1(50.0)	2(100)	35(6.0)
>5000	9(27.3)	24(72.7)	33(100)	2(100)	-	2(100)	37(6.3)
Total	86(40.8)	125(59.2)	211(100)	30(34.5)	57(65.5)	87(100)	584(100)

한 아침 결식을 대신할 비교적 간단한 아침식사를 선호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점심식사 시 조사 대상자들이 주로 선택하는 메뉴는 학생 식당의 백반(17.1%), 국수/라면(12.7%), 찌개류(11.1%), 김밥(9.3%)의 순이었다(Table 9). 그 다음으로는 돈가스(7.9%), 빵류(6.5%), 볶음밥(6.0%), 돼지고기 덮밥(5.3%) 순으로 선호하고 있었다. 그러나 남학생들은 백반, 찌개, 돼지고기 덮밥 및 국수/라면의 순으로 선호하지만 여학생들은 국수/라면, 백반, 김밥, 샌드위치 등의 빵류와 돈가스의 순으로 남학생들은 여학생보다 찌개, 덮밥 등의 비교적 음식의 양이 많은 메뉴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조사의 결과는 20대가 선호하는 점심메뉴로 비빔밥, 냉면, 김밥의 순으로 조사된 Kim & Kim(2002)의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결과이었다.

Table 10과 같이 조사 학생들이 저녁외식 시 선택하는 저녁메뉴는 학생 식당의 백반(17.5%), 찌개류(17.3%), 돼지고기 덮밥(10.0%), 국수/라면(8.5%), 돈가스(5.9%), 피자 및 스파게티(5.7%)와 닭요리 등의 순이었다. 특히 남학생들은 백반(23.0%), 찌개류와 돼지고기 덮밥(20.4%)로 점심식사와 같이 비교적 양이 많은 메뉴를 저녁식사로 선호하고 있었다. 이는 Cheong et al(2001) 연구에서 남자 대학생들은 저녁식사를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결과와 일치하는 경향이었다. 반면 여학생들은 찌개류, 백반, 국수/라면, 돈가스, 피자/스파게티, 볶음밥, 닭요리 및 갈비의 순으로 친구들과

Table 9. Favorite lunch menu items of subjects
N(%) (Plural answer)

Categories	Male	Female	Total
Baekban(Uni. foodservice)	48(24.9)	49(13.1)	97(17.1)
Bokumbab	17(8.8)	17(4.5)	34(6.0)
Bibimbab	4(2.1)	11(2.9)	15(2.6)
Kimbab	6(3.1)	47(12.6)	53(9.3)
Zzigae	44(22.8)	19(5.1)	63(11.1)
Noodle/Ramyun	21(10.8)	51(13.6)	72(12.7)
Pork cutlet	12(6.2)	33(8.8)	45(7.9)
Pork bulgogi	22(11.4)	8(2.1)	30(5.3)
Tang(soup)	9(4.7)	3(0.8)	12(2.1)
Hamburger	2(1.0)	23(6.1)	25(4.4)
Bread(Sandwich)	2(1.0)	35(9.4)	37(6.5)
Duck mix	1(0.5)	15(4.0)	16(2.8)
Chicken	1(0.5)	25(6.7)	26(4.6)
Milk	1(0.5)	10(2.7)	11(1.9)
Pizza/Spaghetti	-	10(2.7)	10(1.8)
The other	3(1.6)	18(4.8)	21(3.7)
Total	193(100)	374(100)	567(100)

Table 10. Favorite dinner menu items of subjects
N(%) (Plural answer)

Categories	Male	Female	Total
Baekban (Uni. foodservice)	35(23.0)	39(14.1)	74(17.5)
Bokumbab	9(5.9)	18(6.7)	17(4.0)
Bibimbab	4(2.6)	6(2.2)	10(2.7)
Kimbab	1(0.7)	10(3.7)	11(2.6)
Zzigae	31(20.4)	42(15.6)	73(17.3)
Noodle/Ramyun	9(5.9)	27(10.0)	36(8.5)
Pork cutlet	2(1.3)	23(8.5)	25(5.9)
Pork bulgogi	31(20.4)	11(4.1)	42(10.0)
Tang(soup)	9(5.9)	5(1.9)	14(3.3)
Bread(Sandwich)	2(1.3)	6(2.2)	8(1.9)
Duck mix	-	6(2.2)	6(1.4)
Chicken	6(3.9)	15(5.6)	21(5.0)
Pizza/Spaghetti	2(1.3)	2(0.8)	4(0.7)
Galbi	2(1.3)	15(5.6)	17(4.0)
Sushi/Raw fish	2(1.3)	12(4.4)	14(3.3)
Steak	1(0.7)	2(0.7)	3(0.7)
The other	6(3.9)	11(4.1)	17(4.0)
Total	152(100)	270(100)	422(100)

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메뉴를 선호하고 있었다. Kim & Kim(2002)은 음식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문화적 요인 중에서 가격과 식재료의 이용 가능성이 가장 중요하므로 진주 지역에서 해산물을 비교적 싼 값으로 구하기 쉬운 관계로 해산물에 대한 기호도가 높은 것으로 보았으나 20대 인 인천 지역 대학생의 해산물 메뉴에 대한 특별한 선호도는 지리적인 요인에도 불구하고 나타나지 않았다. 진주 지역 20대가 선호하는 저녁 메뉴는 한정식과 해물탕과 아구찜이었다. 대학생들의 외식 동기와 관련하여 Jeong & Kim(2001)의 제주지역 조사 결과에서 대학생들은 대부분 끼니 해결을 위해서 아침식사를 외식하고 점심식사는 끼니 해결과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저녁식사는 대부분 친구를 만나거나 모임때문에 외식을 한다고 하였는데 본 조사에서도 끼니별 남학생과 여학생의 선호 메뉴가 식사시기에 따라 다양해지는 것을 볼 때 대학생들의 외식 동기와 메뉴의 선택의 기준은 지역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간식의 경우(Table 11) 남학생들은 국수/라면류(19.4%)를 가장 많이 선호하고 있었으나 여학생들은 과자류(17.2%), 빵류(12.5%), 떡볶이(12.5%), 햄버거(10.9%)의 순으로 선호하고 있었다. 이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라면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는 Shin & Seo(1995)와 Lee & Choi(1994)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었다. 그러나 Shin & Seo(1995)의 연구에서 대

Table 11. Favorite snack foods of subjects
N(%) (Plural answer)

Categories	Male	Female	Total
Cookies	4(6.5)	22(17.2)	26(13.7)
Duck mix	5(8.1)	16(12.5)	21(11.0)
Bread	6(9.6)	18(14.1)	24(12.6)
Ice cream	3(4.8)	8(6.3)	11(5.8)
Noodle/Ramyun	12(19.4)	6(4.7)	18(9.5)
Hamburger	5(8.1)	14(10.9)	19(10.0)
Kimbab	4(6.5)	6(4.7)	10(5.3)
Pizza/Spaghetti	3(4.8)	3(2.3)	6(3.2)
Fried food	2(3.2)	6(4.7)	8(4.2)
Chicken	-	6(4.7)	6(3.2)
Pork sour sauce	2(3.2)	2(1.6)	4(2.1)
Korean sausage/Mandoo	2(3.2)	6(4.7)	8(4.2)
Fruit	1(1.6)	2(1.6)	3(1.6)
Milk	4(6.5)	6(4.7)	10(5.3)
Beverage(Cola/cider)	5(8.1)	5(3.9)	10(5.3)
Coffee	3(4.8)	1(0.8)	4(2.1)
The other	1(1.6)	1(0.8)	2(1.1)
Total	62(100)	128(100)	190(100)

학생의 선호 간식 식품은 과일, 과자류, 빵, 라면, 떡볶이의 순이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과자류, 빵, 떡볶이, 햄버거, 라면의 순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과일의 섭취가 매우 낮게 나타났다(1.6%). 또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Han & Cho(1998)의 연구에서 우유를 거의 매일 마시고 있는 남녀 학생의 비율이 각각 40.9%와 46.0%로 높았으나 Lee et al(2001)의 연구에서는 우유의 섭취빈도가 탄산음료나 커피보다 낮았는데 본 연구에서도 우유의 섭취비율(5.3%)은 매우 낮았다.

3) 외식시 주류의 섭취실태

Table 3과 같이 남녀 학생간의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으나 조사대상의 64.0%는 외식 시에 전혀 음주를 하지 않으며 26.3%는 조금 마시고 있는 것으로 답하였다. 그러나 9.8%의 학생은 많이 마시고 있는 것으로 특히 여학생의 10.1%가 많이 마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Jeong & Kim(2001)이 제주도 대학생이 식사와 술을 함께 하는 경우가 36.8%인 것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조사 대상자들이 주로 마시는 주류는 소주(56.7%), 맥주(40.8%)의 순이었으나 소주는 주로 남학생(70.5%)이, 맥주는 여학생(49.7%)이 남학생(27.4%)보다 더 선호하고 있었다(Table 12). 부산 지역 대학생들도 소주와 맥주를 선호하고 있으며 조사대상 남학생의 2/3 정도는 소주를,

여학생은 1/2 정도가 맥주를 마시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음주 빈도는 높지 않았다. 그러나 알코올은 대뇌의 정신기능인 억제력을 마비시키며 과량 및 장기 음주는 불안 발작, 간염, 간경화, 위장 장애 및 비타민 결핍 등의 영양 장애 초래로 (Chung EJ 1998) 대학생들의 식생활이 더욱 불규칙하게 되므로 이에 관한 영양교육이 필요하겠다.

4. 식당 선택 시의 영향 요인

Table 13과 같이 조사 대상자의 56.9%는 식당에 관한 정보를 친구를 통하여 얻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가족(14.5%), Internet(10.5%), 잡지(9.0%)의 순으로 외식시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있었다. 그러나 음식점 가이드책(1.1%)이나 버스광고(0.2%)는 정보원의 효과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식당 선택시의 결정요인은 Table 14와 같다. 조사 대상자들은 음식의 맛(22.6%), 가격(18.8%), 식당분위기(11.6%), 위생(9.9%)의 순으로 식당 선택 시 다른 요인보다 높게 고려하고 있으나 식당의 브랜드명(1.8%) 또는 식당의 외관(1.7%)은 식당 선택시 낮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Table 12. Items of drinking alcohol
N(%) (Plural answer)

Categories	Male	Female	Total
Korean rice wien	-	-	-
Beer	26(27.4)	71(49.7)	97(40.8)
Soju	67(70.5)	68(47.6)	135(56.7)
Sake	-	-	-
Whisky	2(2.1)	3(2.1)	5(2.1)
The other	-	1(0.7)	1(0.4)
Total	95(100)	143(100)	238(100)

Table 13. Information channels about restaurant
N(%) (Plural answer)

Categories	Male	Female	Total
Family	28(15.7)	41(13.8)	69(14.5)
Friends	106(59.6)	168(56.4)	271(56.9)
Internet	15(8.4)	35(11.7)	50(10.5)
Restaurant guide book	-	5(1.7)	5(1.1)
Books	4(2.2)	6(2.0)	10(2.1)
Magazine	7(3.9)	36(12.1)	43(9.0)
Newspaper	9(5.1)	4(1.3)	13(2.7)
Advertisement on the bus	-	1(0.3)	1(0.2)
None	9(5.1)	2(0.7)	11(2.3)
Total	178(100)	298(100)	476(100)

Table 16과 같이 맛 있다고 소문난 음식점을 일부러 찾아가서 외식하는 경우가 가끔 있다고 답한 비율이 전체 59.6%로 나

Table 14. Reasons for visiting the restaurant

N(%) (Plural answer)

Categories	Male	Female	Total
Price	73(19.4)	115(18.5)	188(18.8)
Atmosphere	34(9.0)	82(13.2)	116(11.6)
Hygienic	41(10.9)	58(9.3)	99(9.9)
Service	33(8.8)	46(7.4)	79(7.9)
Brand	6(1.6)	12(1.9)	18(1.8)
Taste	91(24.1)	135(21.7)	226(22.6)
Variety of menus	19(5.0)	41(6.6)	60(6.0)
Quantity	30(8.0)	49(7.9)	79(7.9)
Location	24(6.4)	31(5.0)	55(5.5)
Advice of friends	21(5.6)	42(6.7)	63(6.3)
Appearance of restaurant	5(1.3)	12(1.9)	17(1.7)
Total	377(100)	623(100)	1,000(100)

Table 15. Reasons of unsatisfaction when visiting the restaurant

N(%) (Plural answer)

Categories	Male	Female	Total
Price	35(12.4)	53(11.9)	88(12.1)
Atmosphere	18(6.4)	26(5.8)	44(6.0)
Taste	56(19.8)	69(15.5)	125(17.2)
Hygienic	63(22.7)	126(28.3)	189(26.0)
Service of employe	56(19.8)	103(23.1)	159(21.8)
Location	12(4.2)	14(3.1)	26(3.6)
Parking	13(4.6)	8(1.8)	21(2.9)
Surroundings around restaurant	16(5.7)	23(5.2)	39(5.4)
Complaint management	13(4.6)	23(5.2)	36(4.9)
None	1(0.4)	-	1(0.1)
Total	283(100)	445(100)	728(100)

Table 16. Gourmet tendency of the subjects

N(%)

Categories	Male	Female	Total	χ^2
Regular	6(5.1)	6(3.4)	12(4.0)	13.940**
Often	23(19.5)	54(30.2)	77(25.9)	
Sometimes	68(11.8)	109(60.9)	177(59.6)	
None	21(17.8)	10(5.6)	31(10.4)	
Total	118(100)	179(100)	297(100)	

** : $p < 0.01$.

타난 결과에서 볼 때 조사 대상자들이 외식장소를 결정할 때 음식의 맛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본 조사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유의적으로 높게 미식가의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Kang JH(2002)은 가격이 정해진 패스트푸드 식당에 비해 가격이 일정하지 않은 분식 및 김밥 식당의 경우에는 가격이 식당 선택의 중요 요인이라 하였으며 Kim & Chung(2001)은 대학생의 경우 주로 학교 근처에서 외식을 하므로 외식업소의 선택 시 저렴한 가격과 가까운 곳에 위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으나 본 조사 결과는 다른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Park & Ahn(2001)의 한국인의 연령·성별에 따른 외식 행동 비교에서 외식 시 음식점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시 하는 것은 음식의 맛이었지만 20대는 음식점의 분위기도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본 조사에서는 식당의 분위기는 다른 요인에 비하여 중요도가 높지 않았다. 조사 대상자들은 식당을 이용할 때 위생상태(26.0%), 종업원의 서비스(21.8%), 음식의 맛(17.2%), 가격(12.1%)의 순으로 외식 시에 불만을 가졌던 것으로 조사되었다(Table 15). 남학생은 위생>맛>서비스>가격의 순으로 불만족하였으며, 여학생은 위생>서비스>맛>가격의 순으로 불만족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5). 이 같은 결과는 직장 남성들의 외식 시 식당시설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Park & Shin(1996)의 결과와 차이가 없는 것으로 식당시설의 위생상태, 종업원의 서비스 태도가 전반적으로 개선되어야 하겠다. 특히 본 조사 대상자들의 학교 식당의 낮은 이용률을 볼 때 (Rho & Woo 2004) 학생들의 외식시의 불만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그 해결 방안을 학교 식당 경영에 활용하는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겠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인천 지역 대학생의 외식 행동과 식당 선택 시에 고려하는 요인을 조사한 것이다. 응답한 총 297부의 설문지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은 남학생 118명(39.7%), 여학생 179명(60.3%)이었으며, 남학생의 평균 연령은 24.31세, 여학생은 20.55세였다. 전공은 문과 52.5%, 이과 47.5%이었고, 학생들의 거주상태는 남녀 학생 모두 가족과 함께 사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주성장지는 대부분 경인지역이었다. 한달용돈은 21~30만원을 쓰는 학생이 가장 많았다.

둘째, 조사 대상자의 체위 및 비만도는 남학생의 체중과 신장 67.96 kg, 174.93 cm, 여학생은 51.99 kg, 165.44 cm이었다. BMI의 경우, 남학생의 평균치는 22.17, 여학생의 평균치는 19.00이었다.

셋째, 1주일에 3~4회 외식을 한다고 답한 남학생은

26.3%, 여학생은 48%이었다. 매일 1회 이상 외식을 하는 경우는 남학생이 54.2%, 여학생이 38%로 남학생의 외식 비율이 높게 조사되었다. 조사 대상자들은 주로 점심식사(46.4%)를, 저녁식사(38.7%)를 외식으로 해결하고 있었다. 학생들의 거주상태에 따라서는 하숙과 자취를 하는 조사대상자의 외식 빈도가 각각 72.7%, 59.4%이었다. 주로 친구들과 함께 외식을 하며, 5.7%의 조사 대상자만이 가족과 함께 외식을 하고 있었다.

넷째, 외식의 장소는 주로 '학교밖의 식당' 56.6%, '학교식당' 19.5%로 학교 식당의 이용률이 높지 않았다. 그러나 남학생의 학교 식당 이용률은 여학생보다 높았으며 여학생들은 학교나 집 근처가 아닌 레스토랑 이용률이 높았다.

다섯째, 음주 실태 조사에서는 9.3%의 남학생과 10.1%의 여학생이 많이 마신다고 답하였고, 63.6%의 남학생과 64.2%의 여학생이 마시지 않는 것으로 답하였다.

여섯째, 조사 대상자들은 외식 시 주로 한식을 선호하고 있었고, 여학생의 경우 점심식사(90.7%)와 저녁식사(78.6%)로 국수류를 남학생보다 더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패스트푸드의 경우도 여학생이 저녁식사(91.3%), 점심식사(89.2%), 간식(55.9%)으로 더 선택하였다. 조사 대상자들은 아침식사로 백반(26.7%), 빵류(26.7%)를 가장 선호하며 조사대상자의 20.0%은 아침에 우유를 마시고 있었다. 점심식사의 경우 학생식단의 백반>국수/라면>찌개류>김밥>순으로 선호하고 있었고, 다음으로 돈가스>빵류>볶음밥>돼지고기덮밥 순이었다. 저녁식사의 경우, 학생 식단의 백반>찌개류>돼지고기덮밥>국수/라면>돈가스>피자/스파게티와 닭요리 등의 순으로 선호하고 있었다. 간식의 경우, 남학생은 국수/라면류를 가장 많이 선호하고 있었고, 여학생의 경우, 과자류>빵류>떡볶이>햄버거 순으로 선호하고 있었다.

일곱째, 외식시 주류의 섭취는 조사 대상자의 64.0%은 외식시 전혀 음주를 하지 않으며 26.3%은 조금 마시고 있었다. 주류는 소주(56.7%), 맥주(40.8%)의 순이었고, 남학생의 경우 소주를 더 선호하고 있었다.

여덟째, 학생들은 식당에 관한 정보를 '친구'를 통하여 얻고 그 다음으로 가족>인터넷>잡지의 순으로 필요한 정보를 얻고 있었다.

아홉째, 학생들의 식당 결정요인은 '음식의 맛' 22.6%, '가격' 18.8%, '식당분위기' 11.6%, '위생' 9.9%순이었고 식당의 브랜드명과 식당의 외관은 낮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자들의 식당 이용시의 불만사항은 위생상태, 종업원 서비스, 음식 맛, 가격의 순이었다.

이상과 같이 남녀 대학생들의 외식 빈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며 반면에 학교 식당 이용률은 높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은 식당 선택의 결정요인으로 음식의 맛과 가

격을 중요시 하고 있어 학생들의 기호에 맞는 메뉴의 개발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학생 식당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편안하게 식사할 수 있는 식당의 분위기 조성 및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감사의 글

이 논문은 2003년도 전북대학교 지원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에 감사드립니다.

문헌

- 김혜정 (2003) 외식업, P 세대를 잡아라. 월간 식당. 10, p. 170-173.
- 김혜정 (2004) 주 5일제를 잡아라. 월간 식당. 9, p. 188-191.
- 박선정 (2004) 외식업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전망. 8, p. 168-193.
- 육주희 (2004) 블랙푸드에 이은 그린푸드 열풍, 올해의 웰빙 컬러는 그린! 월간 식당 4, p. 122-124.
- Bottler J, Rho JO (2001) Measuring quality in the foodservice industry with the quality assessment process developed from the terms relating to quality in DIN EN ISO 9000: 2000. *Hauswirtschaft und Wissenschaft* 49: 58-70.
- Cheong SH, Kwon WJ, Chang KJ(2002) A comparative study on the dietary attitudes, dietary behaviors and diet qualities of food and nutrition major and non-major female university students. *Korean J Comm Nutr* 7: 293-303.
- Choi YS, Yoo YJ, Kim JG, Nam SM, Jung ME, Chung CK (2001) Food preferences and nutrient intakes of college students in Kangwon province. *J Korean Soc Food Sci Nutr* 30: 175-182.
- Chung EJ (1998) The nutritional information of the moderns. Publishing Department. Kangnam University. Yongin. pp. 145-151.
- Han MJ, Cho HA (1998) Dietary habit and perceived stress of college students in Seoul area. *Korean J Dietary Culture* 13: 317-326.
- Jeong EJ, Kim JS (2001) A study on dining-out behaviors of college students in Cheju-do. *J Korean Home Ecos Asso* 39: 21-36.
- Kang JH (2002) Measuring fastfood restaurant attractiveness: a multi attribute approach. *Korean J Dietary Culture* 17: 16-29.
- Kim KH (2003) A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body mass

- index of university students in the Gwangju area. *Korean J Food Culture* 18: 244-260.
- Kim HS, Seo ES, Shin MK (1996) A study on food behaviors of college students in Jeon Buk area. *J East Asian Soc Dietary Life* 6: 153-166.
- Kim HS, Chung CE (2001) A study on the eating out behavior of university students in Seoul. *Korean J Dietary Culture* 16: 147-157.
- Kim SY, Kim JY (2002) A Study on the patterns and preference of eating out of workers in JinJu. *Korean J Dietary Culture* 17: 171-184.
- Kim HY, Kim HJ, Song YH (2000) A study on preference value of utilizing university foodservices by female students in northern part of Seoul. *Korean J Dietary Culture* 15: 295-306.
- Kim WK, Lee KA (1998) Effect of food behaviors on nutrients and food intake in college students. *J Korean Soc Food Sci Nutr* 27: 1285-1296.
- Kwon SH (2003) The relationship between general characteristics and eating-out behaviors of industrial workers. *J East Asian Soc Dietary Life* 13: 501-513.
- Lee KA (1999) A comparison of eating and general health practices to the degree of health consciousness in Pusan college students. *J Korean Soc Food Sci Nutr* 28: 732-746.
- Lee JH, Chang KJ (2003) Regional differences in food intake and diversity among Korean college students of a nutrition education course through the internet. *Korean J Comm Nutr* 8: 41-52.
- Lee YN, Choi HM (1994)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body mass index and the food habits of college students. *Korean J Dietary Culture* 9: 1-9.
- Lee MS, Lee JW, Woo MK (2001)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food consumption of food frequency questionnaire of university students in Taejon. *Korean J Comm Nutr* 6: 172-181.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02) Report on 2002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Survey - Nutrition Survey (I). p. 230.
- Park SW (2004) The effect of eating habits and lifestyle on the food intake of university students in Daejeon. *J East Asian Soc Dietary Life* 14: 11-19.
- Park JW, Ahn SJ (2001) A comparative study on Korean's dining-out behaviors classified by age and gender. *Korean J Dietary Culture* 16: 276-295.
- Park GS, Shin YS (1996) A study of dining out behaviour of businessman in urban regions. *Korean J Soc Food Sci* 12: 13-19.
- RDA Recommended Dietary Allowances for Koreans (2000) The Korean Nutrition Society, 7th Revision, Seoul.
- Rho JO, Woo KJ (2003) A comparison of dietary and health-related lifestyles of food and nutrition major and non-major university students in Incheon area. *J East Asian Soc Dietary Life* 13: 155-166.
- Rho JO, Woo KJ (2004) A study on the dietary behavior of students and utilization of university foodservice in Incheon area. *J East Asian Soc Dietary Life* 13: 362-370.
- Roh JM, Yoo YS (1989) A study on the survey of eating out and food preference of college students in Seoul. *J Korean Home Ecos Asso* 27: 65-174.
- Ro HK (1999) Factors in food selection and eating out of college students. *Korean J Dietary Culture* 14: 241-249.
- Woo KJ, Han BJ, Rho JO (2004) Quality assessment of performance in the university foodservice by students living in Incheon. *J East Asian Soc Dietary Life* 14: 294-301.
- Shin AS, Kim KJ (1995) A study on the dietary culture practice of the university students at campus town in Pusan. *J East Asian Soc Dietary Life* 5: 339-358.
- Shin MK, Seo ES (1995) A study on the food habits and food preference of college students in Ink-San area. *J Korean Home Ecos Asso* 33: 89-106.
- Yang IS, Lee YE, Kim DH (1998) Measuring attitude and satisfaction of Yonsei university students towards contracted vs. rented university foodservices. *Korean J Dietary Culture* 13: 423-430.
- You JS, Chang KJ, Byun KW (1994) A study on nutritional intake of college students. *Korean Home Eco Asso* 32: 209-216.

(2005년 2월 25일 접수, 2005년 4월 6일 채택)